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가장 짧은 시 (시편 117:1-2)

본시는 시편 중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된 신앙은 위대하고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짧고 작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본 시에서 5개의 심오한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①이방인의 소명 ②복음의 총괄 ③축복의 목표 ④하나님 백성의 의무 ⑤하나님 백성의 특권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1. 모든 나라들이

시인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불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경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즉 크리스천 보편 구원설(Christian Universalism)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부르는 선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에 취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선교사가 이방인을 부르는 사명을 잊고 보편구원설을 거부하거나 제한시키는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 안건이 된 것은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진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큰 논쟁을 벌여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 2.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도다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안 우리는 그 보다 더 큰 감격과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3. 하나님 사랑의 우수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2절). 여기서 ‘크시고’는 그 질의 우월성 때문에 넘쳐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에게 넘칠 때 모든 방해물이나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롬 8:38-39).

### 4. 하나님 진리의 영원하신 능력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2절). ‘진실하심’이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 견고함, 의뢰함으로 번역됩니다. 아멘이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통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부동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으로 말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인처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원한 진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shortest psalm (Psalms 117:1-2)

This is the shortest poem in the psalter. The faith connoted in this poem is great and its influence upon us is marvelous. No matter how short it is, the work of the Spirit cannot be limited. Pastor Charles Spurgeon found five profound doctrines in this poem: (1) the Gentiles' calling, (2) the gospel's generalization, (3) the purpose of blessings, (4) the duty of God's people, and (5) the privilege of God's people.

### 1. All the nations!

The psalmist called on all the nations and their peoples to praise the Lord. This is not related to their belief or piety. Not all people will be saved by God but only those who have faith in God and are transformed through Jesus Christ. This is called "Christian Universalism." Consequently, this is the missionary's poem to call all people to praise the Lord.

Because of his foolishness not to look to others, or to become absorbed by his self-satisfaction, there are frequent, dangerous occasions when the missionary may forget his mission to call Gentiles, and limit "Christian Universalism." At the time of the early church, the Jewish people were indifferent to the Gentiles' salvation and in fact thought of it very negatively.

The fact that this matter was the main issue during the meeting at Jerusalem in Acts 15 made th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hurch. By effectively defeating the argument that Gentile believers must be required to be circumcised and obey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be accepted by God's people, Paul brought us the victory of the gospel.

### 2. The Lord's mercy is great

The reason why Gentiles must praise the Lord along with the Jewish people is that the Lord's mercy is everlasting. Since the Jewish people returned from their exile in Babylon knowing the greatness of the Lord's love, they praised the Lord. Since we know that we are saved through the work of atonement, we should praise Him with an even stronger emotion than that.

### 3. God's love is superior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v. 2). Here, the word 'great' means the overflowing of love due to its superior quality. When God's love overflows to His people, we can gain victory against all obstacles and enemies. The Apostle Paul said that nothing in all creation would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8:38-39).

### 4. The power of the Lord's love is everlasting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v. 2). The word, 'faithfulness,' means the word 'amen.' 'Amen' can be translated as truth, solidity, and trust. These days, the word, 'amen,' is one of the few words used in common all over the world. When this word is used referring to God, we are taught about God's immutable nature. Therefore, we call Him the God of truth, and Amen.

### My beloved congregation!

By praising His great and superior love, as well as His eternal truth, like the psalmist, I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승전 보고 및 시상식

지난 25일(목) 우리교회는 6월6일부터 계속된 20일간의 새벽기도 대장정인 "홍해작전"을 은혜 중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 홍해작전은 다락방 중심으로 서로 출석을 독려했으며 20일간 새벽기도회에 출석하여 은혜받은 성도들의 누적인원이 20,153명으로 매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새벽강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전 감사예배 시간에는 홍해작전 기간 중 진행했던 여러 가지 행사의 입상자 시상도 한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 가장 출석률이 좋았던 32개 다락방과 교회학교를 표창하고 특별상으로 최장수상(이기춘 집사, 최순애 권사)을, 가장 많이 참석한 가족을 시상하는 최다가족상에는 노송

성 장로 가족(3대 9명)이 각각 선정되었다.

교회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일장(그리기, 산문)은 **그리기 부문**에 최우수상-김수경(초등부6), 우수상-백시진(초등부4) 송민경(유년부3), 장려상-문예림(초등부4) 김장겸(유치부) 신동준(유치부), **산문 부문**에 김재혁(고등부3) 우수상-김은초(초등부4) 노혜민(초등부6), 장려상-박민수(초등부6) 이태웅(초등부4) 전민찬(유년부1), **사행시 부문**에 최우수상-유복달 권사(4교구), 우수상-권소희 집사(3교구) 이강진 집사(1교구), 장려상-이성혜 선생(교역자가족) 최낙준 집사(14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가 각각 선정되었다. 홍해작전 4행시 입상작은 4면에 실는다.

# 맥추감사절

## 7월5일(주) 주일예배 시간-성찬식

### 찬양예배 시간- 교육1국 어린이들 특별찬양

7월 첫 주일이 되는 다음주일을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 보리 수확 곧 올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유대민족들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며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로 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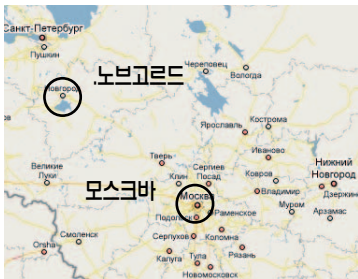
탄생일이기도 하다.

우리교회는 이 기쁜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준비하는 맥추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 러시아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

## -6월21일(주), 김영호 선교사-



러시아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우리교회가 러시아로 파송한 김영호 선교사는 지난 6월21일(주) 러시아의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를 창립하고 첫 예배를 드림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는 2007년 11월 25일 우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의 목회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도우며 어학연수에 전념하였으며 이제부터 교회개척을 통한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케 된다.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는 김 선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교회개척의 비전을 갖고 교회이름을 찾던 중 이종윤 목사의 제안대로 그 지역이름을 붙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에 따라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교회문을 연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 2009년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 주제 "섬겨야 합니다"(갈5:13) / 7월11일(토)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유아부	7.19(주)~21(화)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김은숙 전도사	서울교회
유치부	7.19(주)~21(화)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황광 목사	서울교회
유년부	7.19(주)~21(화)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장석남 목사	서울교회
초등부	7.19(주)~21(화)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서명철 목사	서울교회
중등부	7.27(월)~29(수)	예수님의 섬김	이종윤 목사 · 한상은 목사 · 박종민 목사	가평 그리스도청소년수련원
고등부	7.23(목)~25(토)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정수길 목사 · 황광 목사	느티나무수련원
사랑부	7.11(토)~12(주일)	사랑은 더하고 섬김은 나눠요	이종윤 목사 · 정수길 목사 · 황광 목사	서울교회 · 베델하우스
대학부	7.15(수)~18(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학부	이종윤 목사 · 정수길 목사 · 황광 목사	성광수련원
청년1부	8.13(목)~15(토)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정수길 목사 · 김은수 목사	복지수련원
청년2부	8.20(목)~22(토)	섬겨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 김철홍 목사 · 현승학 목사	정동제일교회수양관
디아스포라	8.7(금)~8(토)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자	이종윤 목사 · 지혜영 전도사 · 박광일 전도사	서울교회 · 알프스글로벌센터
에바다	7.29(수)~31(금)	섬겨야 합니다	임규현 목사	태평원
신혼가정부	8.14(금)~15(토)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	서명철 목사 · 한상은 목사	별빛수련원
장년부	7.14(화)	가정: 그 신비함으로의 초대	홍인중 교수(장신대)	서울교회

# 2009년 9기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파송

## 8월3일(월)~12일(수)

### 캄보디아 군부대로 파송돼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8월3일(월)부터 12일(수)까지 10일간 캄보디아 4개 군부대로 파송돼 의료 및 미미용, 어린이사역, 방역 등의 봉사를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자비량으로 파송되는 이번 선교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갖는다. 7월 12일, 19일, 26일에 8층에서 열리는 단기선교 바자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도: 노현상 목사 · 단장: 권혁우 집사
- 총무: 송미령 집사 · 서기: 이민주 성도
- 회계: 손혜숙 성도 · 의무: 김영주 집사
- 단원: 이자혁 권사 전용순 권사 오신욱 집사 김도현 김미은 김병석 김성은 김세원 손형호 염규빈 오경미 차신영 한민아 한성현 (의료봉사: 하인선 장로, 노제현 집사, 안인호 집사, 이지동 집사, 민효영 집사, 박경정 집사, 하영인 성도, 정현구 성도, 박선영 성도 : 8/4-8/8)

# 장로교의 날 행사 조직

7월10(금) 오후5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장로교의 날 행사에 우리교회를 책임지고 이끌 준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진행분과: 성준경 장로
- 동원분과: 노문환 장로
- 홍보분과: 하인선 장로
- 시설분과: 조정식 장로

# 제5기 설교사역도고강의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강윤희, 권순단, 박명석, 박복윤, 원명희, 이수자, 채경희, 하영숙(이상 8명)

# 성경통독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필사2회(영문1회 국문 1회):

(12교구 송성식 집사)

- 7득: (1교구)한선현 장로
- 3득: (1교구)이소명 집사 (6교구)하인숙 권사 (8교구)김인식 권사 (14교구)김종자 권사
- 1득: (1교구)류순임 권사 류장렬 집사 이경화 집사 이정순 권사 조순엽 권사 (3교구)최정숙 성도 (5교구)최화인 장로 (6교구)김희진 권사 (7교구)이선자 집사 채복순 권사(8교구)조상희 성도 (11교구)임명숙 집사 (12교구)오광환 집사 이수자 권사

신교사 도고팀 탐방 - 군선교

# 군인들이 전도되어야

순례자는 선교사 도고팀 탐방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로 군 선교와 학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도고팀을 만났다.

주일 3부 예배가 끝난 뒤 8층 만나홀은 성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모여들어 다소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팀들이 식당 여기저기 모여 앉아 통성기도를 하는 소리가 그 '시끄러움'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례자가 만난 군선교-학원선교 도고팀도 그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국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팀은 이 팀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도돼야 병영생활도 바르게 되고, 또 제대 후 이들이 믿음의 가정도 세우지 않겠어요? 해외선교사 못지않게 국내 군 선교가 중요한 만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고팀장 김영식 권사의 말이다.

도고팀은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교회와



자매결연을 한 3사단, 23사단, 육사, 해사, 해병대교 육훈련단 그리고 현재 공군 검단교회의 박봉규 선교사와 육군 한마음 군인교회의 김태식 선교사를 위해 기도중이다. 지난해 100여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올해는 교회마다 15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영접하여 우리 교회 이종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진중세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군인이나 대학생들이나 모두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다. 이들 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는 도고팀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순례자도 기도한다.

### <기도제목>

- 박봉규 선교사: (공군 방공포 사령부 제3여단 제53포대 공군 검단교회)
    1. 포대장과 장교와 부사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2. 매주 토요일 사병들의 기도회가 부흥하도록
    3. 부대와 교회사이 험한 길을 오갈 때 안전하도록
  - 김태식 선교사: (육군 제 3887부대 제2탄약창 한마음군인교회)
    1. 성령의 역사로 역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2. 양육교육 활성화와 군중병들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3. 세례식에 많은 장병 참석하도록.
- 김민철 집사(편집부)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요한칼빈탄생500주년 기념예배 · 학술심포지엄



요한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21일(주)오후5시 서울교회에서 칼빈이 제시한 사도들의 예배형식을 통해 죄의 고백과 시편 교창으로 말씀과 성례전이 있는 역사적인 예배를 드렸다.

22일(월) 오전 10시 역시 우리교회에서 72편의 논문들이 읽혀졌고 칼빈 연구에 공을 세운 6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 같은 역사적 행사를 일간신문을 비롯한 교계 신문들이 중요기사로 다루었고, CBS, CTS, 극동방송 등에서 특집으로 다루면서 방영했다.

장로교 정체성 회복과 연합과 일치에 초점을 맞춘 이번 행사는 7월 10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장로교의 날 행사로 꽃을 피울 것이다.



김영미 교수

최현수 교수



칼빈공로상수상자



현대불어판 기독교강요 기증식



분과별 학술발표회



분과별 학술발표회



패널토의



행복한 소그룹학교를 마치고

#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적 감흥

조소량 성도 (15교구)



지난 3월부터 10주간 참 행복한 금요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소그룹학교'란 이름으로 진행된 다락방 모임인데, 신청한 여러 다락방들이 모여 장석남 목사님의 열정적이고 탁월한 인도로 교회 소그룹(다락방)모임의 본질과 가치와 비전을 배우고 그 이론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에 익힐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참석하여, 나누어진 인도지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다락방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영하고(Welcome), 경배하고(Worship), 말씀 나누고(Word),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하기(Works)까지 차례차례 짚어가며 배우고 나니, "아~!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다락방 식구들이 다 같이 이 모임의 성격이나 진행방식 등을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의 선배들이 해오시던 방식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되어 만나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다닌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찬양을 같이 하다보면, 제 속에 잠재워져 있던 영적 감흥도 샘물처럼 솟아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시된 주제를 따라 다락방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욱 친밀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다락방 식구들 골고루 같이 참여하고, 이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성원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증거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공동체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행복한 소그룹학교였습니다. 아직 참석치 못한 다락방들이 다음 2기 모임에 꼭 참석하시라고 재차 강조하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정성으로 이끌어 주신 장석남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따뜻한 차와 문자 메시지와 섬세한 행정으로 섬겨주신 팀장 박옥 집사님, 눈과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쁜 테이블 장식해 주신 스태프 이소연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 홍해작전 4행시 입상작

· 최우수상-유복달 권사

홍해는 아득함부터 지금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이 열정  
작은 아이부터 늙으신 분들까지  
전진, 또 전진 그날이 올 때까지

· 우수상-권소희 집사

홍조 띤 얼굴로 기도하는 새벽  
해맑은 미소가 교회 가득 환하고  
작열하는 주님 응답 눈이 부셔서  
전 세계 복음의 빛 밝게 비추네

· 우수상-이강진 집사

홍해의 거친 물결 갈라진 그날  
가나안 인도하는 바닷길 드러나고  
해조차 차마 숨은

갈보리에 십자가 선 날,  
성전 휘장이 육체로 찢어졌네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사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  
생명길이 활짝 열렸도다!

· 장려상-이성혜 선생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해 같이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 장려상-최낙준 집사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해일처럼 덮쳐오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홍해가  
작은 물방울 같이 흠어져  
마른 땅 되었네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 장려상-이인선 권사

홍해가 무서웠습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심하고 작전에 임하였습니다  
전승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찬양대의 솔리스트인 박세영(서울 장신대 교회음악대학원), 이민주(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4학년), 박세아(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4학년), 권오영(한세대학교 성악과 4학년) 등이 독창과 중창으로 찬양 드린다. 오늘 저녁은 Laudamus te '하나님을 찬양하라/A.Vivaldi' 의 2곡으로 찬양 드린다. 반주는 김현정 선생(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졸업)이 담당한다.

## 필그림 MTB선교단 창단

우리교회는 선교위원회 산하에 '필그림 MTB선교단'을 창단하였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체력도 단련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시내 및 외곽 지역으로 전도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화) KIMCHI Theological Journal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7월1일(수) 정로교의 날 대회 위원장 회의를, 7월2일(목) 요한 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 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7월3일(금)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사임: 중등부를 지도하던 이태훈 목사와 사랑부를 지도하던 황선철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각각 사임 하였다. 앞으로 중등부는 박종민 목사가 사랑부는 문정훈 목사가 각각 지도하게 된다.
- 임명: (12교구)오영숙 권사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기념연주회: 이영조 집사(12교구, 음악감독)는 부친이신 작곡가 허 '이홍렬' 탄생 100주년 기념연주회'를 7월2일(목) 오후7시30분 세종M씨어터에서 갖는다. (T. 011-760-1713)
- 특남: (11교구)심진영 성도 이보람 성도 가정(이승우 집사, 서경순 권사 장녀)
- 이진: 만만나(대표 3교구 이찬호 집사) 6월29일(월) 대치역 사거리 대치퍼스트빌딩 지하 101-102호(T. 010-6348-5155)
- 이사: (6교구) 김경옥 권사 강서구 방화3동 방화8단지개화아파트 105-201호 (11교구)정경월 권사, 송파구 문정동 웨딩리@ 109동 701호 T. 02-443-6356 (12교구)한준희 집사 이건희 집사, 분당구 분당동 41 현대빌라 103동 103호 T. 031-8016-8188

- 주간식당봉사: 이삭 선교회(6.28) 도르가전도회(7.5)
- 금주의 식사: 김제세 장로 이운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 교회오시는 길

